

석·박사 학위논문을 통해 본 한국 차문화 관련 연구동향의 분석

박준식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과 한계

II. 차문화의 이론적 배경

1. 차와 차문화의 정의
2. 차의 종류

3. 차의 성분과 효능

4. 차문화의 변천과정

III. 차문화 관련 연구동향의 분석

1. 조사 대상 자료의 선정
2. 분석과 결과

IV. 요약 및 결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일본서기」나 「삼국사기」 등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이미 6세기 중엽부터 차를 마시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이 차생활을 어떻게 즐겼는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문헌은 없다. 이것은 다반사라는 말이 의미하듯 차생활을 굳이 문헌으로 남길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밥 먹는 것에 대해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일지도 모르겠다.

해방이후 서구문명의 유입으로 커피 등이 들어와 전통차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일제 통치의 영향으로 차문화가 일본 문화인 것처럼 오인되어 오랫동안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래서 차가 일부 상류사회 인사들의 기호품처럼 여겨져 차의 대중화는 요원한 듯 보였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소득이 높아지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우리의 고유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우리의 전통차에 대한 관심은 넓게는 문화생활, 좁게는 품위 있는 개인 생활 또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 중산층 이상의 여유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확대되어 갔다. 이러한 관심은 특히 우리 차를 예와 도의 차원에서 즐기고자 하는 욕구로 이어져 많은 사회교육기관에서 차관련 문화강좌가 개설되고, 각급 학교의 교양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차를 생활화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 아직까지 차문화가 학문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 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차에 관한 연구도 1970-80년대의 시험적 시기를 거쳐 90년대부터 본격화 되는 추세에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차에 관한 연구는 차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 차의 효능과 효과, 차에 관한 의식조사 등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돼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차에 관한 문헌을 발굴하고 이를 시대별로 정리하여 각 시대 차문화의 특성을 기술하거나, 문헌목록을 제시하여 차 연구를 진작시키는 등의 서지적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차 관련 연구는 시기별로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고, 연도별로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은 어떤 수준에 와 있는지 등의 주제는 아직도 연구된 바가 없어 흥미로운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차 관련 연구 활동이나 내용 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우리나라의 석·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 차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차문화 관련 학위논문을 학위 종류별, 논문의 발표연도별, 차문화의 영역별로 분석함으로써 차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방법과 한계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방법과 계량서지적 분석방법을 병행했다.

문헌적 연구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차의 정의, 유형, 발전과정, 성분과 효능 등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며, 분석을 위한 기초 지식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계량서지적 분석방법은 차문화 관련 학위논문이 처음으로 출판된 1972년 이후 2003년까지 출판된 국내의 석, 박사학위논문을 국내의 학위논문 주요 데이터베이스(국회도서관 편, 「국내 석·박사학위논문 목록 DB」, 국립중앙도서관 편, 「석·박사학위논문 DB」,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편 「대학도서관소장 학위논문 DB」)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탐색하고, 이를 대상으로 주요 관점에 따라 분석하는 기법으로 활용하였다.

한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 연구는 우리나라 차문화 관련문헌의 서지학적 분석을 위한 탐색적인 연구로서, 석·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차문화 전반의 연구동향을 나타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 연구는 우리나라 차문화 관련 문헌을 수집하고 그 논제를 중심으로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이나 질을 전반적으로 알아내기에는 어렵다는 점이다.

II. 차문화의 이론적 배경

1. 차와 차문화의 정의

차는 의미상 세 가지로 정의된다. 첫째는 식물로서의 차나무, 둘째는 물에 타거나 달이어 음료로 만드는 재료, 마지막으로 차물을 의미한다. 첫 번째 정의는 보통 차나무로 표현하며, 세 번째 정의는 흔히 차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라고 할 경우 두 번째 정의를 지칭한다. 그러면 차의 어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차’(cha)라는 어휘는 광동성의 마카오 사투리로부터 나왔으며, 영어에서 쓰이는 ‘테’(tea)는 복건성의 아모이 사투리로부터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다.¹⁾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는 동남아를 통한 육로로 전파되었고, ‘테’(tea)는 해로를 통하여 서양으로 전파되어 현재의 ‘tea’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차의 한자의 원음(原音)은 ‘차’이지만, 중국에서는 ‘차’와 ‘다’의 두 가지 발음을 다 쓴다.²⁾ 우리

1) 이강자, 한국 차문화의 사적 고찰, 인천대학교 논문집 21(1996), pp.51-52.

2) 이기원, 장삼식, 詳解 漢字大典, (서울: 한영출판사, 1978), p.1299.

나라에서도 두 가지 음을 함께 쓰고 있는데 용법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을 보면, 차를 독립적으로 말하거나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할 때는 ‘차’라고 하고, 주로 한자 어휘로 표현하고자 할 때는 ‘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즉, 언어습관에 따라 다르게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는 한자와 어울려, 다과(茶菓), 다식(茶食) 다도(茶道), 다인(茶人), 다담(茶談), 다구(茶具), 다기(茶器), 다실(茶室), 음다(飲茶), 다시(茶匙), 등으로 사용된다. 한편, ‘차’는 순수한 우리말 표기와 관련하여 많이 쓰인다. 햇차, 찻잔, 찻집, 찻종, 찻그릇, 차손님, 찻물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한자로 된 단어이면서 ‘차’로 발음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명절 때의 간단한 제례를 차례(茶禮)라 하고, 차실(茶室), 차반(茶盤), 차장(茶檯), 차유(茶油), 찻잔(茶盞), 차제구(茶諸具), 차종(茶鐘) 등이 그렇다. 따라서 두 발음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 표현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차문화와 연관된 개념으로는 ‘다도(茶道)’와 ‘다례(茶禮)’의 두 가지 개념이 있다. 이 두 용어는 유사한 뜻으로 사용되지만 의미상 구분이 있다. 다도는 사전적 정의로는 “차잎 따기에서 달여 마시기까지의 다사(茶事)로서 몸과 마음을 수련하여 덕을 쌓는 행위이다.” 이 정의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차를 만들고 마시는 행위에서의 법도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통해 구현되는 심신수련과 덕행의 연마이다. 명나라의 장원(張源)이 쓴 다록(茶錄)에는 “차를 정성들여 만들고 건조하게 저장하며 깨끗하게 우리면 다도를 다한 것이다”³⁾고 했다. 즉, 중국에서는 다법(茶法)을 중심으로 다도를 정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초의선사가 처음으로 다도란 용어를 썼다. 그는 올바른 다법을 행함으로써 큰 진리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뜻으로 다도란 용어를 사용했다.⁴⁾ 이는 다도가 내포하는 두 번째 개념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의 차를 음료로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마시는 방법 자체가 하나의 의례이며, 종교적 신비성과 사회적 윤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이를 다도라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⁵⁾

한편, 중국은 옛날부터 다법(茶法)이 있고, 일본에서는 고유의 다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다도는 없고 다례만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차를 마시는 행위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문화의 본질은 단순, 소박, 자유로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차를 마시는 것도 형식이 없는 소박함을 추구하지 않았을까? 다만 차를 만들고 마시며, 다담(茶談)을 즐기는 전체 과정의 자유로움 속에서 정신수양과 덕을 쌓았으리라 생각한다. 그것은 능히 “도 없음의 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형식으로부터 나오는 도에 비해 더 높은 차원의 도가 아니겠는가.

다례는 차 마시거나 바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행위로서의 예법을 말한다. 다례는 그 시대마다

3) 이용우, 茶와 茶道. (대구: 삼보에드컴, 2003), p.253(제인용).

4) Ibid.

5) 츠노야마 사가에, 녹차문화 홍차문화. (서울: 예문서원, 1980), p.12.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영향 때문에 그 의미가 조금씩 달랐지만 분명한 점은 다도가 차를 통한 정신수련의 과정인데 비해 다례는 차를 마시거나 바치는데 필요한 예절과 법도에 한정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차를 마시는 예절을 강조하는 생활다례와 각종 의식에서 행하는 의식다례의 두 종류가 있다. 의식다례는 불교나 유교 등의 종교의식에서 행하는 헌다례, 궁중에서 왕에게 바치는 헌다례, 외국의 사신 접대나 국가행사 때 행하는 의식다례, 또 각종 제례(祭禮)에서 차를 바치는 의식다례 등 다양한 다례가 있다.

차문화와 연관된 것으로서 차를 마실 때 사용되는 도구로서의 '다구(茶具)'와 곁들이는 음식으로서의 '다식(茶食)'이 있다. 다구는 원래는 불교에서 차를 공양하는 헌다의식(獻茶儀式)에 사용하는 불구(佛具)를 지칭하였다⁶⁾. 그러다가 최근 차문화가 일반인들에게 널리 보급되면서 이런 도구들이 일반의 차생활에 그대로 활용됨으로서 차문화의 일부를 이루게 되었다. 다구는 차를 담거나 끓이고 마시며, 뒤처리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를 총칭할 때 사용된다.

다식(茶食)은 사전적 정의로는 밤가루·송화가루·콩가루·녹말가루·참깨가루 또는 볶아서 말린 멥쌀가루 등을 꿀에 반죽하여 무늬가 새겨진 다식판에 박아 만든 음식을 말하는데, 원래는 신라시대에 가례(家禮)에 병단상(餅團狀)으로 만든 차(송나라 大小龍團 등)를 접대에 쓰던 풍습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후 접다를 가례에 쓰던 풍습이 변하여 형식만 남고 실물은 바뀌어 다식을 만들어 쓰게 된 것이다.⁷⁾ 다식은 원래 이러한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차와 과일(茶果), 차와 과자(茶菓)는 한자 어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다식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차문화라고 할 때는 차를 마시는 행위와 관련한 사회적, 문화적 형태나 규범 등을 일컫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차문화에 보다 광범한 개념이 포함되어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학이나 사회교육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다례나 다도교육, 차를 만드는 과정의 여러 방법에 관한 이론과 실천으로서의 제다법, 차를 판매와 관련된 마케팅,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디자인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심지어 차의 성분과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과학적 접근마저도 차문화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오늘날 차문화란 차를 마시는 과정에서의 예절과 법도 등 문화적 요소, 이러한 활동에 수반되는 다구나 다식 등의 문화·예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차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요소, 차를 만드는 방법과 차의 효능을 분석하는 등의 과학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한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차의 종류

차의 종류는 차의 발효 정도, 제조 시기, 형태, 재배 방법, 품종, 재배 조건, 생산 지역 등에 따라

6) 박숙희, 한국다례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1994, pp.18-19.

7)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php?id=41881>> [인용: 2004년 10월 13일]

상이하다. 우선 발효정도에 따라 차잎을 전혀 발효시키지 않고 엽록소를 그대로 보존시킨 비발효차(생차), 반쯤만 발효시킨 반발효차, 완전히 발효시킨 발효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비발효차에는 녹차(綠茶), 엽차(葉茶) 등이 있고, 반발효차에는 반약차(半若茶), 오룡차(烏龍茶)가 있으며, 발효차는 홍차(紅茶)가 대표적이다⁸⁾.

차는 또한 제조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전차(煎茶): 찻잎을 증기로 찌서 만든 차
- ② 연차(研茶): 그늘에서 자란 어린 찻잎을 찌서 건조한 덩어리 형태의 차
- ③ 배차(倍茶): 번차(燻茶)와 질이 떨어지는 전차를 원료로 고온처리(섭씨 약 170도)하여 향이 나도록 한 차
- ④ 말차(末茶): 그늘에서 자란 찻잎을 찌고 말려 가루로 만든 차
- ⑤ 번차(燻茶): 전차의 가공 공정에서 남은 잎이나 줄기 등을 충분히 찌고 강한 열에 말려 제조한 차
- ⑥ 아차(芽茶): 목은 차나무에서 딴 만물차와 두물차의 싹과 움을 모아 만든 차⁹⁾

우리나라에서 즐겨 찾는 녹차는 분류방법이 조금 다르다. 재배시기에 따라서는 4월말이나 5월초 그해에 처음 따서 만든 것을 만물차(春茶)라고 하며, 첫물차를 따고 나서 6월경에 다시 돌아난 것으로 만든 차를 두물차(夏茶), 두물차를 따고 나서 7월경에 다시 돌아난 잎으로 만든 차를 세물차로 부른다. 또한 9월에서 10월 상순에 제조한 차를 추차(秋茶)라 한다.¹⁰⁾ 그리고 우리나라 차는 찻잎을 채취한 시기에 따라, 곡우(4월 20일경)이전에 따서 만든 차를 우전(雨前)이라 하며 최고의 품질로 친다. 이로부터 보름이 지나기 전(대개立夏인 5월 5일경)에 채취한 잎으로 만든 차는 세작(細雀)이라하고, 5월 말경에 딴 큰 잎으로 만든 차를 대작(大雀)이라 한다. 세작과 대작 사이 즉, 5월 중순에 딴 잎으로 만든 차를 중작(中雀)이라 한다. 이 외에도 차의 생장조건과 관련하여 찻잎이 새의 혀 같다하여 붙인 작설차(雀舌茶), 대밭에서 이슬을 머금고 자란 찻잎이라 하여 죽로차(竹露茶), 눈이 녹기 전의 어린 잎으로 만든 차라 하여 춘설차(春雪茶), 차의 새순이 나올 때 그늘막으로 빛을 차단시켜 만든 옥로차(玉露茶)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3. 차의 성분과 효능

차의 성분에는 차의 산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75~80%의 수분과 20~25%의 고형물로 되어 있으며, 고형물에는 탄닌(tannin), 카페인(caffeine), 단백질 아미노산, 아미드와 당, 전분, 섬

8) 이성애, 우리나라 차문화의 문헌적 고찰과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1991. p.5.

9) 이용우, *op. cit.*, pp.44-45.

10) 이강자, *op. cit.*, pp.56-57.

유소, 펙틴 등의 탄수화물과 색소와 향기 성분인 정유(精油), 비타민 및 무기질 등이 포함돼 있다.¹¹⁾ 차가 지닌 이러한 성분 때문에 차를 마시면 카페인의 각성, 강심, 이뇨작용에 의해 대뇌 중추 신경을 알맞게 흥분시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완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사고력 판단력이 증진되고 혈액의 순환과 신장의 기능을 높여 배뇨를 활발하게 하여 피로물질의 체외 배출을 촉진함으로써 생활을 운택하게 하고 활동력을 증진시키게 된다.

차는 또한 고혈압, 동맥경화, 암, 당뇨 및 비만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비타민C, 테아닌(theanine), 비타민B1, 루틴, 다당류 및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발암성 물질의 활성을 저하시키고, 보통의 세포가 암세포로 이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작용이 있다.¹²⁾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의 양을 저하시켜 동맥경화를 억제하며,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루틴은 차물을 황금색으로 나타내는 색소로서 모세혈관의 저항성을 높이고 혈관 벽의 위약성을 저지시키는 작용이 있다. 그리고 비타민C는 모세혈관 벽의 조직을 강하게 하여 그 위약성과 투과성을 개선해서 출혈을 막고 혈중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다. 또한 탄닌은 지방을 분해하여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작용이 있다. 차는 이외에도 피부미용 효과, 변비예방, 충치예방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동의보감」에는 ‘차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진정시키고 소화를 돕고, 머리와 눈을 맑게 하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소갈증을 멈추게 하며, 잠을 적게 한다. 또한 뜸질하여 데인 독을 풀어준다’고 하였다.¹³⁾ 이렇듯 차는 식품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 또는 약성 내지는 인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도(道)의 경지에까지도 이르게 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분명 차는 경전에서 밝히는 차의 구덕(九德)을 이루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차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하고 예스럽게 한다. 또한 장소와 시간과 그 일에 맞도록 차를 뜨겁게, 때로는 미지근하게 또는 시원하게 우려내는 사람의 손맛과 정성에 따라 약리적인 작용뿐 아니라 인성 계발과 정신건강에도 많은 이로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차문화의 변천과정

가. 삼국시대의 차문화

삼국시대의 차문화를 말하기 전에 먼저 차의 기원에 대해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차를 처음 시작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중국은 차나무 원산지의 하나로서 차나무를 발견하고, 가장 먼저 차잎을 사용하여 차를 만들어 마신 나라이다. 그래서 중국차

11) 유태중, 차와 건강. (서울: 동지, 1989), p.57.

12) 이성애, *op. cit.*, pp.8-10.

13) 김의정, 한국의 차문화와 궁중다례. (서울: 솔바람, 2001), p.50.

를 차의 기원으로 본다.¹⁴⁾

당나라의 육우(陸羽)가 쓴 「다경(茶經)」에 중국의 전설적인 황제 신농(神農)이 쓴 「식경(食經)」에 차에 관한 내용이 있다. 「식경」에 ‘차를 오래 마시면 사람이 힘 있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했다. 또한 전한(前漢)시대인 기원전 59년 노비문서인 동약(僮約)에 ‘무도에서 차를 사서 양씨가 짐을 지다’, ‘차를 많이 끓여 놓으니 한데 모여 술 마시는 일이 없어졌다’고 하는 기록이 나온다.¹⁵⁾ 이로 미루어 이미 전한시대에 차를 사고 팔만큼 차가 성행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차생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삼국시대 이전의 차생활에 대해서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 삼국시대 이전의 차문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삼국시대 이전의 차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는 있다. 한나라가 우리나라에 한사군을 설치하였다 함은 한나라의 전장제도(典章制度)를 우리나라에서 행하였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중국의 생활과 문화의 일부가 우리나라에서도 행해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전한시대에 이미 상당한 수준의 차생활이 있었고, 비록 일부 계층이기는 하나 우리나라(한사군)에도 차를 마셨을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기록으로는 신라 선덕여왕 때 차를 마셨음이 확인된다.

「삼국사기」 흥덕왕 12월조에 보면 ‘12월에 사신을 당(唐)에 보내어 조공하니 당나라 왕 문종이 인덕전에서 사신을 불러보고 사연(賜宴)·사물(賜物)을 베푸는데 차등이 있었다. 당에서 돌아오는 사신 대렴(大廉)이 차의 종자를 가지고 오니, 왕은 그것을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 차는 선덕여왕 때부터 있었지만 이 때에 이르러 성행하였다¹⁶⁾’고 했다.

이 기록은 이미 선덕여왕 때 차가 존재하였지만 차 씨를 들여와 본격적으로 재배할 만큼 일부 계층에서는 차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은주는 당시 차생활은 주로 왕족, 승려, 화랑 등 상류층이 누렸으며, 승려와 화랑은 차를 통해 정신을 수양하고 도를 터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왕족과 상류층 인사들은 손님접대와 각종 행사에 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¹⁷⁾ 특히 불가에서는 차 공양이 의식의 중요한 부분이 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세기 중반에 건립된 석굴암의 부처상 가운데서 문수보살이 아주 세련된 찻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기록으로는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일본서기(日本書紀)」에는 메이천황 13년 백제의 성왕이 담혜화상 등 16명의 스님에게 불구와 차를 일본에 보내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미 6세기 중반에 차를 마시고 있었음이 증명된다. 그리고 「동대사요록(東大寺要錄)」에도 백제의 귀화승인 행기가 차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고구려의 차생활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14) 이용우, *op. cit.*, p.16.

15) *Ibid.*

16) 三國史記 新羅本紀 興德王 12月條

17) 강은주, 한국 차생활의 고찰, 상지대학교부설전문대학 논문집 11집(1992), p.151.

나. 고려시대의 차문화

삼국시대에 일부 상류층 사람들이 누렸던 차문화가 고려시대에 이르러 폭넓게 보급되어 우리나라 차문화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차는 귀한 물건으로 여겨 임금이 신하에게 차를 내리기도 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왕궁과 대신, 심지어는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차를 마셨고, 일부 평민들에게까지 확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⁸⁾

특히 이 시대에는 차를 관리하는 다방(茶房)이라는 관서를 두고 연등회, 팔관회, 공덕제 등의 국가의례와 외국 사신의 영접에 차를 대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찰에 차를 공급하는 다촌(茶村)을 운영하였으며, 불교행사에는 반드시 헌다의식을 하였고, 국가의 행사에는 술과 과일을 임금에게 올리기 전에 임금이 먼저 차를 청하면 신하가 차를 올리는 진다의식(進茶儀式)을 행하였다. 이때의 준비와 의식은 다방의 관리들이 맡아 행하였다.¹⁹⁾

고려시대의 차는 사찰, 왕실, 귀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사회경제를 좌우하는 기관과 같이 되었으며 차의 재배, 제조 모두를 관장하였고 차문화 또한 사치의 극에 이르렀다.²⁰⁾ 그래서 송나라의 고급스러운 다구를 수입하여 사용하는가 하면 고려청자 등의 다구도 발달하였다.

그런가 하면 일반인들은 차를 파는 다점(茶店)이라는 곳에서 차를 구입하기도 하고, 다점에서는 차를 우러서 팔기도 하였다. 이곳에는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상생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호음료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²¹⁾

따라서 고려시대의 차문화는 일부 특권 계층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차를 즐겼던 차문화의 대중화시대였던 것으로 보이며, 고려청자와 같은 고급의 그릇이 다기로 활용됨으로써 차문화의 고급화도 가져왔다.

다. 조선시대의 차문화

조선시대에는 승유억불정책으로 불교가 쇠퇴하자 고려시대에 성행하던 차문화도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조선의 왕실과 상류층, 그리고 승려들은 차생활을 행하였고, 그들의 차 수요를 위해 일반 백성들은 보다 심한 노역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백성들의 원망과 반감은 높아갔으며, 그로 인해 차나무를 제거하거나 재배를 등한시하였다. 이에 차의 생산이나 품종개량은 당연히 퇴보될 수밖에 없었으며, 차를 수입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²²⁾

조선시대 후기에는 차문화가 더욱 쇠퇴하여 다방(茶房)의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마침내 궁중의 의례적인 행사나 형식적인 다례가 유지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증인계급 또는 부유한 상인

18) 박숙희, *op. cit.*, p.32.

19) 강은주, *op. cit.*, pp.152-153.

20) 이성애, *op. cit.*, p.19.

21) 강은주, *op. cit.*, pp.152-153.

22) 황춘선, 한국의 차문화에 관한 소고, 한국전통문화연구 4호(1988), pp.331-332).

들은 일상생활에서 담배가 많이 보급되면서 차를 마실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된 것도 차문화 쇠퇴의 한 요인이 되었다.²³⁾

라. 근·현대의 차문화

조선조에 이르러 급속하게 퇴보된 차문화는 조선조 말 일본의 침략으로 더욱 피폐해져 서민들은 물론 중인들까지 차문화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해방이후까지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6.25 동란 후, 서구문명의 유입으로 차생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즉, 서양의 커피와 홍차가 유입되면서 전통차는 더욱 외면당했고 이러한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된다.

우리나라의 현대적 차문화는 1970년대 후반부터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불교계와 여성계가 차문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차생활에 적극적인 불교계가 이를 주도했다. 당시 승려들은 설법하는 선에 머무르지 않고, 다기, 다구 제조 및 제다와 선택법까지 교육시키는 열성을 보였다. 심지어 자기 범명이나 절 이름을 차나 다구에 상표처럼 붙여 직접 만들어 팔 정도였다. 물론 젊은 승려들의 이러한 활동은 차생활을 널리 알리는 데는 공헌하였으나 차에 불교적 색채를 질게 담은 면에서는, 오히려 역작용도 있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²⁴⁾

그 후, 1982년 7월 문화공보부에서 다도문화진흥책으로 전통 다도의 연구와 정립, 홍보와 교육, 관광지에 다원(茶苑)개설, 차 생산기반의 확충과 내실화, 재래 차의 보호, 다기의 대량생산 지원 등의 정책을 발표하고, 전통 다도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²⁵⁾

198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 전통문화의 얼과 멋을 찾고자 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중산층이 폭넓게 포진되면서 여유로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래서 차문화도 특수계층의 전유물에서 일반 대중들도 즐길 수 있는 대중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울러 이 시기부터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소집단의 다도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인기를 끌면서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또는 각종 사회교육기관에서 다투어 다도강좌를 개설하기 시작했다. 그런가 하면 각급 학교의 교양과목으로써, 특별활동의 한 부분으로써 다도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차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차가 기호음료로서 뿐만 아니라 건강음료로서 재평가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전통적 차문화가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해 오지 못한 탓으로,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차에 대한 지식이 없는 편이며, 그래서 차를 마시고 즐기며, 이를 예와 도의 경지로 승화시키는 일은 과제로 남아있다.

23) 이강자, *op. cit.*, p.59.

24) 이기훈, 반취교실, <<http://www.banchu.com/about.php>> [인용 2004, 6, 30].

25) 김의정, *op. cit.*, pp.89-90.

Ⅲ. 차문화 관련 연구동향의 분석

1. 조사대상 자료의 선정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차 관련 문헌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는 국회도서관의 「국내 석·박사학위논문 목록DB」, 국립중앙도서관의 「석·박사학위논문DB」,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대학도서관소장 학위논문DB」등 세 가지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차 및 차문화 관련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차 및 차문화에 관한 석·박사학위논문이 처음으로 발표된 1972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2년 동안 발표된 석·박사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과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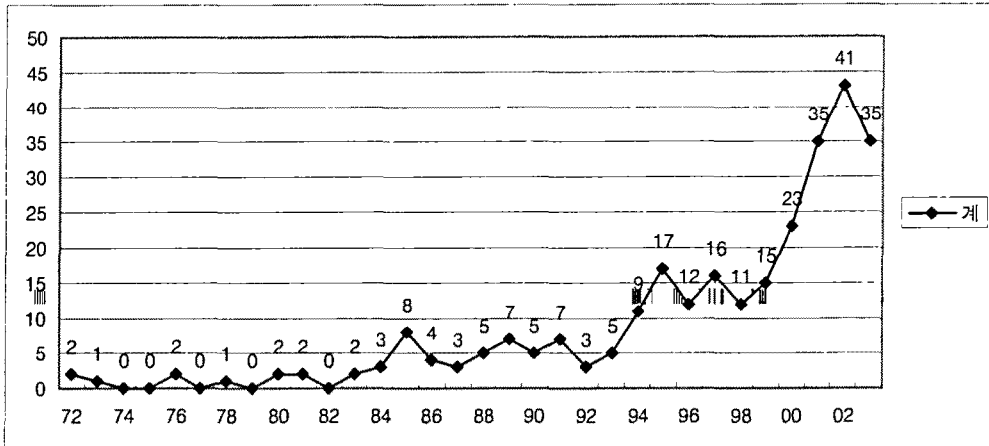
가. 연도별 출판현황과 분석

〈표 1〉은 차문화에 관한 석·박사학위논문이 처음 발표되었던 1972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각 대학에서 발표된 석·박사학위논문을 연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 기간동안 모두 276편의 석·박사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표를 보면 차문화 관련 학위논문의 연도별 증가추이도 알 수 있다. 내용을 분석해보면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연간 1-2편씩 발표되다가 80년대 중반부터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추세가 약 10년간 지속되다가 1990년대 중반과 2000년 초반에 급격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03년에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2003년의 학위논문이 데이터베이스 갱신 시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 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차문화 관련 학위논문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현상은 이론적 배경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중산층의 증가 및 여가생활의 확대, 그리고 건강생활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의 사회적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은바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1〉 연도별 발표현황 (단위: 편)

연도	편수	연도	편수	연도	편수	연도	편수	연도	편수	연도	편수	연도	편수	연도	편수
1972	2	1976	2	1980	2	1984	3	1988	5	1992	3	1996	12	2000	23
1973	1	1977		1981	2	1985	8	1989	7	1993	5	1997	16	2001	35
1974		1978	1	1982		1986	4	1990	5	1994	9	1998	11	2002	41
1975		1979		1983	2	1987	3	1991	7	1995	17	1999	15	2003	35
														합계	276

<그림 1>은 석·박사학위논문이 연도별로 증가하는 추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연도별 증가 추이

나. 학위종류별 발표현황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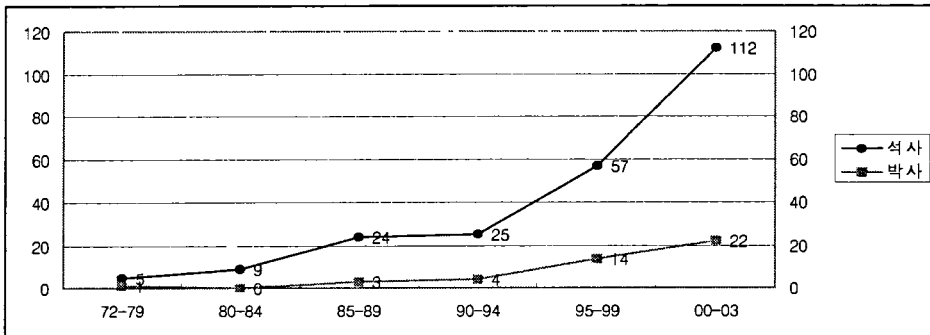
<표 2>는 석사, 박사 학위의 종류별로 발표된 현황을 조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면 전체 276편의 논문 중에서 석사학위논문은 232편으로서 전체의 84%에 이르고 있는 반면, 박사학위논문은 44편으로서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발표된 차문화 관련 연구는 대부분 석사 학위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박사학위 과정은 연구의 출발점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석사학위 논문이 차문화 관련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대학의 차문화 관련 학과 현황에서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학부과정에서 차문화를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학과는 개설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특수대학원에서는 차문화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비교적 전문화 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의 성균관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등의 특수대학원에서 차문화를 예절과 관련하여 지도하는 학과(또는 전공)가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대학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는 아직까지 학과가 개설되어있지 않다. 다만 원광대와 같은 일부 대학의 경우 최근 특정 학과의 세부 전공으로 차문화 관련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차문화가 대학의 전문적인 연구영역으로 자리 잡는 초기 단계임을 말해준다.

〈표 2〉 학위종류별 발표현황 (단위: 편)

구 분		1972-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3	계(%)
석사논문	총 편수	5	9	24	25	57	112	232(84)
	연평균 논문 수	0.6	1.8	5	4.4	11.4	28.5	7.3
박사논문	총 편수	1		3	4	14	22	44(16)
	연평균 논문 수	0.1		0.6	0.8	2.8	4.4	1.4
계	총 편수	6	9	27	29	71	134	276
	연평균 논문 수	0.7	1.8	5.4	5.8	14.2	26.8	8.6

〈그림 2〉는 약 5년 단위(70년대는 8년, 2000년대는 4년)로 학위논문의 연 평균 증가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석사학위논문의 연도별로 증가추이는 1972년부터 꾸준히 발표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1990년대 중반부터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그림 1〉의 연도별 증가추세와 비슷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박사학위논문은 1972년에 처음으로 발표된 이후로, 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1편에도 이르지 못하는 발표실적을 보이다가 역시 1990년대 중반부터 연간 평균 3-4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어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예측케 하고 있다.



〈그림 2〉 학위논문의 연평균 증가 추이

다. 분야별 발표현황과 분석

〈표 3〉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차문화의 여러 분야별로 석·박사학위논문이 발표된 현황을 약 5년 단위로 묶어 놓았다.

〈표 3〉 분야별, 연도별 출판현황 (단위: 편, 비율)

분야 \ 연도	연도						계(%)
	1972~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3	
차문화 일반	2		1	2	1	9	15(5.4)
다도				1	4	4	9(3.3)
다례			1		2	7	10(3.6)
다구	1		2	4	5	6	18(6.6)
다식	1	1	1		2	3	8(2.9)
교육					2	8	10(3.6)
제조·제다법		3	3	1	4	6	17(6.2)
마케팅·디자인			1	1	2	7	11(4.0)
효능·효과	2	5	18	20	49	84	178(64.4)
계	6(2.2)	9(3.3)	27(9.7)	29(10.5)	71(25.8)	134(48.5)	27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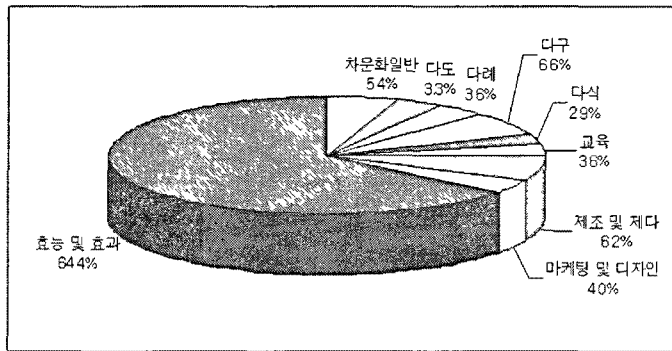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분야별 발표논문은 효능 및 효과 영역이 178편으로 전체의 64.4%에 이르는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는 차 관련 논문이 처음으로 발표된 이래로 지금까지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그 비율 역시 지속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차문화 관련 연구가 주로 의학 및 약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말해준다. 그 다음으로 다구에 관한 연구가 18편으로 6.6%, 제조 및 제다법에 관한 논문이 17편(6.2%)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리고 차에 관한 일반적 이론을 다루고 있거나 차의 역사적 변천 또는 차의 종류나 사회, 문화적 관점을 다루고 있는 차문화 일반에 관한 논문이 15편(5.4%)을 차지하고 있다. 차문화 일반에 관한 논문은 초기부터 2000년 이전까지는 논문 수가 크게 변화가 없다가 2000년부터 급격하게 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차에 관한 연구가 보다 이론적인 접근 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말해준다.

전통적인 차문화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다도(9편)와 다례(10편), 그리고 교육 분야(10편)는 모두 합쳐도 10%를 조금 상회할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이 분야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어 예와 도의 관점에서 차를 보는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임을 말해준다. 그리고 차를 경제적 관점에서 다루는 마케팅이나 디자인에 관한 연구가 11편으로 다도나 다례에 비해 오히려 높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차생활이 보급되고 일반인들이 차에 접근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차 관련 산업이 자연스럽게 경제활동의 한 부분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4년간의 발표논문을 대상으로 비율을 살펴보면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최근 4년간 발표된 논문 중 차문화 일반, 교육, 마케팅의 분야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차문화의 대중화와 다도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림 3〉은 분야별 발표현황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각 분야별로 점유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학위논문의 분야별 점유율(백분율로 표시)

라. 효능 및 효과 영역의 주제 분석

차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논문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전체 논문의 64.4%에 이른다. 차의 효능과 효과에 관한 논문이 이렇게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의 편중현상은 1990년대 들어 차의 효능과 효과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면서 차가 기호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식품, 의료 및 약품 등 다양한 영역의 응용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또한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영역의 논문들을 다시 두 가지 분야로 분류해보면, 하나는 식품학(식품공학, 식품영양, 식품가공)이고, 다른 하나는 의·약학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차의 효능과 효과를 식품학과 의·약학으로 나누어 연도별로 발표된 논문의 수를 표로 나타내면 〈표 4〉와 같다.

〈표 4〉 효능 및 효과 영역의 연도별 논문 수 (단위: 편, 괄호: 비율)

영역 \ 연도	1972~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4	1995~1999	2000~2003	계(%)
식품학	0	1	3	4	6	16	30(17)
의·약학	2	4	15	16	43	68	148(83)
계	2	5	18	20	49	84	178(100)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난 32년간 발표된 총 논문 수는 178편으로, 식품학 분야의 논문이 30편, 17%이며, 의·약학 분야의 논문이 148편으로 무려 83%에 이른다. 식품학과 의·약학의 점유율은 2000년 이후의 추세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차의 용도가 식품일 경우, 식품으로서 응용할 수 있는 연구 분야가 차의 첨가로 인한 식품의 변화, 녹차, 녹차 식빵 등 그 분야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의·약학 분야에서는 차의 약리적 작용을 포함하여 신경정신, 암, 차를 이용한 대체의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분야 모두 80년대 중반부터 논문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분석대상과의 추세와 일치한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 9년 동안 발표된 식품 분야의 논문이 그 이전의 23년 동안 발표된 논문의 약 3배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의·약학 분야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의·약학 분야의 전체 논문 148편 중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발표된 논문은 모두 111편으로서 무려 75%에 이르고 있어 식품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 이전의 23년 동안 발표된 논문의 약 3배에 이르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발표 논문 수가 급증하는 현상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분야에서의 증가 추세와도 역시 일치하고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 1972~2003년까지 32년간 발표된 차문화 관련 석·박사 학위논문 276편을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차문화에 대한 이론적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그래서 차의 어원과 정의를 밝히고, 이에 근거하여 차문화를 차를 마시는 과정에서의 예절과 법도 등 문화적 요소, 이러한 활동에 수반되는 다구나 다식 등의 문화·예술적 요소뿐만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차와 관련된 사회·경제적 요소, 차를 만드는 방법과 차의 효능을 분석하는 등의 과학적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광범한 의미로 해석하였다. 또한 이론적 배경에서는 차의 종류와 성분 및 효능을 살펴보았고, 우리나라에서 차문화가 형성되고 발전한 전체 과정을 논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차문화 관련 연구 동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분석결과, 이 기간동안 모두 276편의 석·박사학위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주로 80년대 중반부터 발표 논문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증대, 중산층과 여가생활의 확대, 또 건강생활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의 사회적 환경에 영향을 받은바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석사, 박사 학위의 종류별로 출판된 현황을 보면, 전체 276편의 논문 중에서 석사학위논문

은 232편으로서 전체의 84%에 이르고 있고, 박사학위논문은 44편으로서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이는 아직도 차 또는 차문화가 대학의 전문적인 연구영역으로 자리를 잡기 위한 초기 단계에 와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분야별 분석결과는, 차의 효능 및 효과, 다구, 제조 및 제다법, 차문화 일반, 교육, 마케팅 및 디자인, 다례, 다도, 다식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의 효능 및 효과 영역은 총 178편으로 전체의 64%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차 관련 연구가 자연과학 특히, 의학 및 약학의 관점에서 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4년간의 발표논문은 차문화 일반, 교육, 마케팅의 분야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가장 높은 출판비율을 점하고 있는 효능 및 효과 영역을 주제별로 분석해 본 결과, 의·약학이 총 178편 중 148편(83%)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식품학은 30편(17%)으로 의·약학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구영역이 식품학에 비해 의·약학 분야가 훨씬 더 광범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